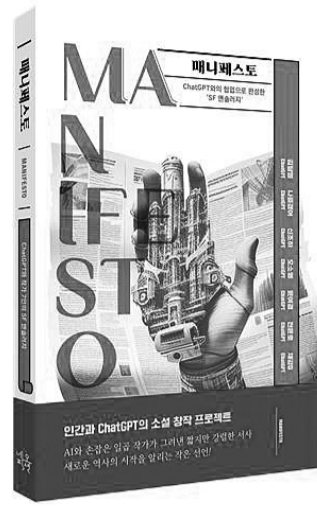


‘소설가·챗GPT’ 협업 소설 나왔다

소설집 ‘매니페스토’ 전자책 발간
김달영 등 작가 7명과 공동 집필
7편의 단편·협업 후기 등 실려
다음달 3일 오프라인 출간



챗GPT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일까? 과연 챗GPT는 아름다운 작품을 창작해낼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인공지능 챗GPT는 AI기술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검색해 완성된 문장 형태로 답변을 해준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높은 단계에까지 챗GPT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단 7일 만에 책 쓰기를 마쳐 세상을 놀라게 했다. 대개의 경우 책 출간은 짧으면 수개월 길면 1년 넘게 걸리는 게 일반적인데 말이다.

이번에는 소설가와 챗GPT가 함께 집필한 소설집이 출간돼 화제다.

챗GPT 관련 책들이 앞다퉈 쏟아지는 상황에서 사람과 챗GPT가 협업을 통해 소설을 창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목을 집중시킨다.

출판사 자음과모음의 장르소설 브랜드 네오픽션은 작가 7명과 챗GPT가 함께 쓴 소설집 ‘매니페스토(Manifesto)’를 전자책으로 27일 발행했다. 오프라인 소설집은 내달 3일 출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소설쓰기나 시 짓기와 같은 창작은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해왔다. 인간의 풍부한 감정과 섬세한 묘사, 얽히고설킨 플롯은 인간의

깊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서만 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견해였다.

출판사 측은 “글은, 문체는 인간 작가만이 시도하고 성취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이라고 선 그으면 끝일까? 그렇지 않다는 대답 대신, 한번 해보자는 결심을 했다. 가장 인간 고유의 영역인 창작, 그중에서도 소설을 AI와 함께 써보는 거다. 그리고 함께 하는 과정을, 그 시행과 착오를 모두 담아보는 거다”라고 밝혔다.

인간 작가로는 모두 7명이 참여했다. 김달영을 비롯해 나플갱어, 신조하, 오소영, 윤여경, 전운호, 채강D가 그들이다. 작가들의 면면도 다채롭다. SF소설가, 대학교수, 변호사, 기획자, 영화 담당 기자 등으로 대부분 오랫동안 창작과 연관된 일을 해왔다.

소설집에는 7편의 단편과 작가의 협업 후기 등이 더해져 있어 그 과정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이

번 작품집은 출판사의 언급대로 “시도와 과정과 결과를 모두 담은, 성공과 실패의 조각이 모두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소설집”인 셈이다.

각각의 소설은 ‘팅 빈 도시’(김달영), ‘희망 위에 지어진 것들’(나플갱어), ‘Manifesto’(신조하), ‘그리움과 꿈’(오소영), ‘감정의 온도’(윤여경), ‘오로라’(전운호), ‘펜웨이 파크에서의 행운’(채강D)이다.

김달영의 ‘팅 빈 도시’는 황량한 공간 속에 거주하는 어느 소녀의 3차원 가상세계를 그리고있으며 채강D의 ‘펜웨이 파크의 행운’은 부상으로 위기에 처한 어느 야구 선수의 기적 같은 성공담을 담고 있다.

책에는 각각의 저자들이 챗GPT와 협업을 하면서 느낀 후기 등을 수록하고 있어 흥미롭다. 작가들은 소설의 전개과정을 묻거나 어떤 소재를 다룰지 의논하기도 했다고 한다. 소설의 제재가 될 자료를 조사하게 하고 문장을 취향에 맞게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챗GPT는 소재가 부적절하다며 거부하거나 작가가 요구한 내용과는 다른 이야기를 제공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유상근 메리스트대학 영문과 교수는 추천사에서 “로봇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는 로봇과 AI 프로그래밍 물건을 만들거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인간을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왔다”며 “ChatGPT는 우리 모두의 가방에 쉬지 않고 일하는 500명의 작가, 화가, 변호사, 교수를 언제나 개인 비서로 데리고 다닐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킬링 로맨스’ 웃다가 ‘힐링’ 됩니다”



이선균(왼쪽), 이하니

이선균·이하니 주연 다음달 개봉
은퇴한 톱스타 재벌 남편 탈출기
“폭소 만발 현장 분위기 전달됐으면”

“정말 세상에 없던 미장센과 연기가 있는 영화가 나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우 이하니가 자신이 주연한 영화 ‘킬링 로맨스’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24일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이런 영화가 한국 영화로 세상에 존재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정했다”며 “반전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다”고 말했다.

내달 개봉을 앞둔 ‘킬링 로맨스’는 은퇴한 톱스타 여배(이하니 분)가 자기 남편인 섬나라 재벌 조나단(이선균)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분투하는 이야기다. 여배의 팬 범우(공명)와 영찬(배유람)이 컴백 작전을 돕는다.

‘남자사육생명사’(2012)로 개성을 뽐냈던 이원석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그는 “대본 속 주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며 메가폰을 잡은 계기를 밝혔다.

이하니는 “저도 여배우로서 여배가 가진 고초가 이해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했다”면서 “도피 결혼을 택한 여배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킬링 로맨스’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대목 중 하나는 이선균의 파격 변신이다. 영화 ‘기생충’(2019)과 ‘김메이커’(2021), 드라마 ‘나의 아저씨’(2018)와 ‘법쩍’(2023) 등 무게감 있는 작품으로 대중과 만나왔던 그는 이번 작품을 통해 코믹한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이선균은 자신의 역할을 “광기와 집착의 아이러니이자 나르시시즘의 끝판왕”이라 소개하면서 “이렇게 과장된 역할은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어떤 현장보다 많이 웃으며 촬영했는데, 그 행복감이 잘 전달됐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배의 팬클럽 3기 출신 영찬 역을 맡은 배유람은 “이 영화를 안 본 눈을 사고 싶어질 정도다. 계속 처음 본 것처럼 보고 싶다”면서 “‘N차 관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화에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로 잘 알려진 댄서 모니카가 안무가로 참여했다. 이 감독은 “친분이 있어 무작정 찾아갔는데 자신에 대한 철학, 사랑을 대하는 태도 면에서 정말 존경스러웠다”고 회상했다.

/연합뉴스

인문학에서 본 ‘팜파탈’

‘한재골 아카데미’ 4월 8일~5월 27일...클레오파트라 등 조명

서태후, 클레오파트라, 살로메, 양귀비... 남성을 유혹하는 관능적인 여성을 뜻하는 용어를 ‘팜파탈’이라고 한다. 19세기 문학작품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미술이나 영화 등 타 장르로 확대됐다. 남성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탓에 ‘악녀’ 등의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강성률 교수

역사속의 팜파탈 등을 조명하는 인문학 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강성률 광주교대 명예교수(소설가)는 “2023 한재골 아카데미-제1회 인문학 이야기”를 연다. 오는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며 장소는 담양 크로엔젤 카페 별관 ‘한재골 아카데미 세미나실’.

첫 강의(4월 8일)는 ‘금유주의와 쾌락주의’를 주제로 문을 연다. 2강(15일)은 ‘중국의 4대 팜파탈-여후, 가후, 측천무후, 서태후’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고, 3강(22일)은 ‘마키아벨리’를 주제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군주론’의 마키아벨리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수많은 여성들을 농락했던 호색한들을 알아보는

시간도 있다. 4강(29일)에서는 ‘희대의 호색한’을 주제로 돈주양, 카사노바 등을 모티브로 강의한다.

이어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있다. 5강(5월 6일)은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성애의 형이상학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6강(5월 13일)은 ‘서양의 팜파탈-살로메, 클레오파트라, 카르멘, 비너스’를 주제로 강좌가 펼쳐지고, 7강(5월 20일)에는 ‘프로이트’를 주제로 무의식, 리비도, 꿈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마지막 강좌(5월 27일)는 ‘영국지색’을 주제로 펼쳐질 예정이다. 희망자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전화(010-2895-3737)로 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 광주 북구, 대상 기업 모집

광주시 북구(청장 문 인)와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4월 7일까지 ‘2023 북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디자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을 통해 시장경쟁력 및 매출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기업은 북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며, 지원분야는 ▲기업 이미지(CI), 또는 브랜드(BI) 개선 ▲포장디자인 개발 ▲마케팅용 홍보물 등 3개 분야이다. 평가위원회를 열어 9개 과제를 선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되, 디자인 전문기업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중소기업은 1년 이상 봉사 또는 공장이 광주에 소재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 같은 내용으로 유사사업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세월호 참사’ 교훈 담은 콘텐츠 공모

4·16재단, 6월 1일~21일 접수

제5회 4·16재단 문화콘텐츠 공모전이 열린다.

세월호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재난참사 관련 창작물에 대한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공모전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공모 부문은 극장 상영 및 멀티플랫폼반영을 위한 시나리오 등으로 세월호참사의 교훈을 담은 장면 영상 콘텐츠다. 장편 극영화·다큐멘터리는 시나리오 혹은 트리트먼트를, 드라마는 단막극 혹은 미니시리즈 중 1개 형식을 선택해 제출하면 된다.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으로 4·16재단이 주최하고

씨네21이 후원하며 접수는 6월 1일부터 21일이다. 대상 4000만원, 입선 1000만원 등 총 상금은 5000만원이며 당선작 발표는 오는 8월 15일이다. 4·16재단 홈페이지에서신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이메일(apply@416foundation)제출하면 된다.

한편 4·16재단은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을 담아 2018년 5월 발족한 정부지원 비영리법인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는, 일상이 안전한 사회’를 비전 삼아 세월호참사 추모사업, 안전사회를 위한 지원사업, 피해자지원 사업, 청소년·청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